

6 부처와 칼뱅

： 16세기 교회일치의 옹호자들

박경수 교수 / 장로회신학대학원대학교 역사신학과

들어가는 말¹⁾

16세기 종교개혁 연구에 있어서 지금까지 학자들은 대체로 루터, 츠빙글리, 칼뱅과 같은 주류 종교개혁자들에게만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부처, 멜란히톤, 불링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특히 마틴 부처(1491-1551)는 장 칼뱅(1509-1564)에게 미친 영향 때문에 칼뱅연구에서 각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학자들은 부처가 칼뱅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살피고 있다. 해스팅 엘스(Hastings Eells)는 칼뱅의 회심에 부처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검토하였는데,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²⁾

1. 이 논문의 영역본은 KAATS 영어논문집에 기고되었다.
2. Hastings Eells, "Martin Bucer and the Conversion of John Calvin," *Princeton Theological Review* Vol. 22, No. 3(July 1924) : 402-419. 엘스는 이 흥미롭고 논쟁적인 논문에서 부처와 칼뱅 사이에 오갔던 세 통의 편지를 분석하고 서, 그들은 1537년 베른 대회에서 처음으로 만났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 이전에 일어났던 칼뱅의 회심에 부처가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고 결론 짓는다.

구스타프 안리히(Gustav Anrich)는 부처를 ‘개혁교회 전통의 아버지들 중 한 사람’으로 파악했으며, 칼뱅에게도 예전, 교회정치와 치리, 주석방법, 예정론과 성찬론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다.³⁾ 그는 부처가 칼뱅주의 개혁의 주된 근원이라고 보았다. 프랑수아 방델(François Wendel) 또한 칼뱅이 부처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음을 인정했는데, 그러면서도 그는 부처에 의해 형성된 것보다 칼뱅 스스로 이룬 것들을 더 강조하였다.⁴⁾ 방델은 부처의 사상과 활동이 보다 광범위한 중요성을 획득하게 된 것은 칼뱅을 통해서였다고 믿었다.

이 논문에서 내가 밝히고자 하는 것은 부처와 칼뱅의 교회일치 사상과 활동이다. 나의 논지를 전개하기 위해 먼저 칼뱅이 스트라스부르에 체류했던 1538년에서 1541년 사이의 부처의 교회일치를 위한 활동들을 살펴보고, 그 후 부처와 칼뱅의 관계, 칼뱅의 교회일치를 위한 노력들을 고찰할 것이다. 나는 특별히 칼뱅의 교회일치 사상에 부처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이 주제는 비단 부처와 칼뱅연구를 위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16세기의 에큐메니즘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칼뱅이나 다른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을 교회의 일치를 깨고 분파를 만든 자들이라고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일치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입장 고찰은 16세기 에큐메니즘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라 할 것이다.⁵⁾ 나아가 오늘날의 에큐메니칼운동의 원칙을

3. Bard Thompson, “Bucer Study since 1918,” *Church History* Vol. 25, No. 1(March 1956) : 63–82.

4. François Wendel, *Calvin :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tr. Philip Mairet(New York : Harper&Row Publishers, 1950), 137–144. 이 장에서 방델은 칼뱅의 「기독교강요」에 미친 부처의 영향을 검토한다.

5. 16세기 에큐메니즘에 대한 학문적 연구성과를 일별하기 위해서는, Donald G. Nugent, *The Colloquy of Poissy : A Study in Sixteenth Century Ecumenism* (University of Iowa, 1965) ; John T. McNeill, *Unitive Protestantism : The Ecumenical Spirit and Its Persistent Expression*(Richmond : John Knox Press, 1964) ; John T. McNeill and James Hastings Nichols, *Ecumenical Testimony*(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1974)와 같은 책들을 참고해야

세우는 데도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해 줄 것이다.

논의를 전개하기 전에 먼저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에큐메니즘(ecumenism)’이라는 용어에 대해 정의할 필요가 있다.⁶⁾ 이 용어가 집중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이지만, 실제로 이 용어는 고대로부터 사용된 용어이다. 이것은 그리스어 오이코메네(oikoumene)에서 유래한 것으로 ‘온 세상’(the whole world)을 뜻한다. 이 용어는 역사의 각 단계에서 매우 다양한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신학적 논쟁의 원인이 되어 왔다. 20세기에 이 용어는 다양한 신앙고백을 하는 교회들 사이의 일치를 위한 노력을 언급할 때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교회일치와 화해를 위한 노력은 기독교 역사 내내 있어 왔다. 비록 16세기에 에큐메니칼을 추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일이었을 뿐 아니라 때로는 매우 위험한 도전이긴 했지만, 그때에조차도 교회의 일치를 위한 진심 어린 시도들이 있었다. 이 논문에서 나는 에큐메니즘이라는 용어를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의 일치와 협력을 이루어 내려는 노력’이라는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교회일치를 위한 부처의 노력들

최근의 부처연구는 교회일치를 위한 부처의 열정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 주제와 관련하여 부처가 다른 개혁자들에게 폭넓은 영향을 미쳤음을 밝혀 주고 있다. 부처의 폭넓은 영향과 관련하여서, 하인리히 보른캄(Heinrich Bornkamm)은 “독일 내 프로테스탄티즘의 일치, 개혁교회의 예

만 한다.

6. ‘ecumenical’이라는 용어에 관해서는, Willem Adolf Visser’t Hooft, “The Word ‘Ecumenical’—It’s History and Use,” in *A History of the Ecumenical Movement 1517–1948*, Vol. I, 735–740을 보라. 에큐메니칼운동의 자세한 역사에 관해서는 Ruth Rouse and Stephen Charles Neill, *A History of the Ecumenical Movement 1517–1948*, Vol. I, 그리고 Harold E. Fey, *A History of the Ecumenical Movement 1948–1968*, Vol. II(Geneva : WCC, 1986)를 참조할 수 있다.

배와 조직,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영국 성공회의 관념, 청교도와 경건주의운동 등은 많은 적든 부처의 숨결을 포함하고 있다.”⁷⁾고 평가하였다. 더욱이 칼뱅의 「기독교강요」 영역판을 편집한 존 맥널(John T. McNeill)은 부처를 ‘16세기에 교회일치의 이상을 가장 열정적으로 주창한 사람’⁸⁾이라고 불렀다. 부처는 ‘평화주의 정신의 화신 그 자체’⁹⁾였다. 부처는 교회일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라면, 교리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누구라도 만날 용의가 있었으며 또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많은 교파들에게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일치를 위한 부처의 관심은 그의 개인적인 배경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는 1506년 도미니크 수도회의 일원이 되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을 배웠다. 토미즘이 부처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에 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끝나지 않았다. 여하튼 그는 이후에 열광적인 에라스무스주의자가 되었고, 하이델베르크로 간 후에는 열렬한 루터 추종자가 되었다. 그는 1521년 도미니크 수도회를 떠나 1523년 스트拉斯부르에 정착한 후, 1548년 토마스 크랜머(Thomas Cranmer)의 초청을 받아 영국으로 가기 전까지 20년 이상을 스트拉斯부르의 종교개혁자로 일하였다. 영국에 가서도 부처는 1549년 「공동기도서」(*Book of Common Prayer*) 개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에드워드 6세를 위해 경건한 공화국의 이상을 제시한 「그리스도의 왕국」(*De Regno Christi*)을 저술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전통들과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 부처는 애큐메니칼적 정신을 험양할 수 있었으며, 폭넓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교회일치를 위한 부처의 활동은 두 단계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프로테스탄트 그룹들 내의 일치를 추구한 초기 단계와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 사이의 화해를 추구한 후기 단계이다. 첫 단계에서 부처는 독일 루터주의

자들과 스위스 개혁자들의 분열의 핵이 되었던 성찬론을 둘러싼 차이점들을 화해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성찬론은 여러 개혁자들, 특히 루터와 츠빙글리의 불화의 핵심이었다. 부처는 양측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두 사람의 불화를 해소하고자 했다. 부처는 츠빙글리와 함께 그리스도가 승천한 후에는 그 육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고 믿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육체가 편재한다는 루터주의자들의 가르침을 거부하였고 츠빙글리의 상징설을 받아들였다. 반면에 성찬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한 수단이라고 믿었다는 점에서 그는 루터와 뜻을 같이하였다. 그는 성찬이 엄밀한 의미에서 은혜의 수단은 아니라고 한 츠빙글리의 주장은 거절하였다.¹⁰⁾

부처는 양측의 간격을 메우기 위해 두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뿐 아니라 성찬에 대한 상호 합의문까지 준비하였지만 두 사람 모두 이것을 거절하였다. 엘스에 따르면 부처는 세 가지 이유로 인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첫째는 루터와 츠빙글리 사이의 차이가 근본적인 것이었다는 점, 둘째는 진리를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다는 점, 셋째는 평화를 위해 노력한 사람들은 양측 편에 흡수되거나 제삼의 집단이 될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렸다는 점 때문이었다.¹¹⁾ 논쟁이 가열되면서 루터는 부처를 ‘뱀, 독사, 살모사’¹²⁾라고 불렀다. 츠빙글리의 후계자였던 불링거도 부처가 성찬론을 모호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비난하면서 “우리 시대에 부처보다 더 교황파들에게 희망을 주고, 성찬론을 모호한 방식으로 논하는 사람은 없다.”¹³⁾고 주장했다. 루터는 부처에게서 츠빙글리주의를 보았고, 불링거

10. John T. McNeill, *Unitive Protestantism*, 144–152, and James M. Kittelson, “Martin Bucer and the Sacramentarian Controversy : the origins of his policy of concord,” *Archiv für Reformationsgeschichte* 64(1973), 166–183.

11. Hastings Eells, “The Failure of Church Unification Efforts during the German Reformation,” *Archiv für Reformationsgeschichte* 42(1951) : 160–173.

12. Peter Newman Brooks, “Martin Bucer : Oecuméniste and Forgotten Reformer,” *Expository Times* 103(May 1992), 234.

7. Bard Thompson, “Bucer Study since 1918,” 82.

8. John T. McNeill, *Unitive Protestantism*, 144.

9. Ibid., 146.

는 부처에게서 루터주의를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부처는 진심 어린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완고함으로 인해 중간점을 찾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단계는 가톨릭 신자들과 프로테스탄트 신자들 사이를 화해시키려는 그의 노력과 연관되어 있다. 이것은 특별히 칼뱅이 스트라스부르에 체류했던 1538년부터 1541년 사이에 두드러진다. 나는 특별히 레겐스부르크 회의에서의 부처의 노력에 논의의 초점을 맞출 것이다. 레겐스부르크 회의(1541년 4월)가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의 일치를 위한 노력의 역사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되기 때문이다. 이 회의에서 부처, 멜란히톤, 피스토리우스(Pistorius : 헤센의 필립이 속한 교회에서 온 신학자)가 프로테스탄트를 대표하는 신학자들이었으며, 그로퍼(Gropper), 플러(Pflug), 애크(Eck)가 가톨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 레겐스부르크 회의는 라이프치히 회의(1539년 1월), 프랑크푸르트 회의(1539년 4월), 하게나우 회의(1540년 6~7월), 보름스 회의(1540년 10월) 등과 같은 일련의 모임 끝에 마련된 것이었다. 부처는 이 모든 회의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여기에서 칼뱅 또한 부처와 함께 이러한 회의들에 참여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일련의 회의들을 통하여 칼뱅은 교회일치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레겐스부르크 회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기 독일의 정치적, 종교적 배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¹⁴⁾ 그 당시의 종교적 분열상은 독일의 정치적 통일을 위협하였다. 프로테스탄트들이 수적으로 급속히 증가하여 슈말칼덴 동맹을 독자적으로 조직하였으며, 이것이 제국을 분열시켰다. 하지만 황제 카를 5세는 프랑스와 투르크족과 같은 적들에 대응하기 위해 통일된 제국을 필요로 했다. 따라서 황제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일치를 요구하였다. 양측의 목회자들 중에서 온건파들은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

13. Wilhelm Pauck, "Calvin and Butzer," *The Heritage of the Reformation* (Glencoe : The Free Press, 1950), 87~88.

14. Hastings Eells, "The Origin of the Regensburg Book," *Princeton Theological Review* Vol. 26(1928) : 355~372.

평화를 원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황제의 요구에 환영을 표하였다. 그들은 몇 차례의 공식 회의들을 통해 상호 이해에 도달하고자 노력했지만 양측의 극단주의자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원하던 결과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공식적인 만남 외에도 부처와 그로퍼 사이에서 비밀 모임들이 이루어졌다. 이런 비밀 회합들에서 양측이 오랫동안 논쟁해 왔던 중요한 주제들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부처와 그로퍼의 이러한 노력 덕택에 마침내 「레겐스부르크 문서」(*Book of Regensburg*)라 불리는 에큐메니칼적인 문서가 나올 수 있었다.

「레겐스부르크 문서」는 부처 개인뿐만 아니라 16세기의 에큐메니칼운동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문서는 23개의 교리적 조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작성의 책임은 부처와 그로퍼에게 있었다.¹⁵⁾ 처음 5항목들은 은총과 관계된 교리, 즉 타락 이전의 인간, 자유의지, 죄의 원인, 원죄, 칭의에 관한 것들이다. 6번째부터 9번째 항목은 교회에 관한 교리, 즉 교회의 정의, 교회의 표지, 죄의 용서, 성서해석에 대한 교회의 권위를 다루고 있다. 10번째부터 18번째 항목들은 교회의 칠성사에 관한 것들이다. 19번째부터 23번째 항목들은 교회의 위계질서, 성인들에게 드리는 호소와 죽은 자를 위한 기도, 미사, 독신, 치리와 같은 개혁을 필요로 하는 주제들을 다룬다.

이것들 중에서 칭의를 다룬 5번째 항목과 성찬을 다룬 14번째 항목이 양측 사이에서 격렬하게 토의되었다. 가장 치열한 논쟁이 칭의의 교리를 둘러싸고 일어났다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왜냐하면 이 교리야말로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주된 교리였기 때문이다. 루터뿐만 아니라 칼뱅이나 다른 개혁자들에게도 칭의의 교리는 단지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 모든 교리의 총합이며, 교회가 서느냐 넘어지느냐를 결정하는 구심점과 같은 중요한

15. Basil Hall, "The Colloquies between Catholics and Protestants, 1539~1541," *Councils and Assemblies*, ed. G. J. Cuming and Derek Baker(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235~266.

것이었다. 「레겐스부르크 문서」에서 부처와 그로퍼는 ‘이중 칭의’라고 알려진 타협적인 교리를 제안하였다. 이 교리에 따르면 “인간은 루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외적이고 전가된 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며, 또한 중세 교회가 전통적으로 주장해 온 것처럼 얼마간은 본래적인 의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¹⁶⁾ 부처와 그로퍼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합체시키고자 하였다. 비록 부처가 그 둘을 구별하였고 전자를 우선적으로 강조하긴 했지만, 그 둘을 분리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부처는 이중 칭의의 교리에 관해 설명하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와 말로 또한 의롭게 된다.”¹⁷⁾라고 하였다. 이중 칭의의 교리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고 인정되며 또 그들의 사랑의 행위를 통해 실제적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와 그로퍼를 위시한 온건파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중 칭의의 교리는 양측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또 다른 심각한 충돌은 성찬을 들러싸고 일어났다. 프로테스탄트들은 화체설의 개념을 논박했으며 보존되어 있는 성체를 숭배하는 데 도전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는 믿음에 의한 칭의까지 기꺼이 수용했던 콘타리니(Gasparo Contarini) 추기경조차도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선언된 화체설 교리를 포기하고자 하지 않았다.¹⁸⁾ 콘타리니는 자신과 프로테스

16. Steven Ozment, *The Age of Reform 1250–1550 : An Intellectual and Religious History of Late Medieval and Reformation Europe*(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80), 406.

17. W. van't Spijker, “The Influence of Bucer on Calvin as becomes evident from the *Institutes*,” *John Calvin's Institutes : His Opus Magnum*(Potchefstroom : Potchefstroom University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1986), 128.

18. William P. Anderson, “Gasparo Contarini : Sixteenth Century Ecumenist,” *Ecumenical Trends* 13/9(October 1984), 142. 콘타리니 추기경은 회담 참여자들 중에서 가장 흥미롭고 에큐메니컬적인 인물 중 한 명이다. 레겐스부르크 회의에서 콘타리니의 역할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H. Mackensen, “Contarini's Theological Role at Ratisbon in 1541,” *Archiv für Reformationsgeschichte* 51(1960)

탄트 개혁자들을 갈라놓는 것은 이신칭의의 교리가 아니라 성례에 대한 교리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성찬에 대한 교리를 둘러싸고 양측 사이의 오랜 반목이 재현되었다.

그 결과로 판단하자면 레겐스부르크 회의는 실패였다. 양측의 대표들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정열적으로 일하기는 했지만, 회의는 양측의 차이를 결국 극복하지 못하였다. 부처, 멜란히톤, 그로퍼, 콘타리니와 같은 온건파들의 노력은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좌절되었으며, 결국 양 진영은 「레겐스부르크 문서」를 거부하였다. 루터는 레겐스부르크 회담을 ‘시작하기도 전에 희망이 없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고, 「레겐스부르크 문서」를 ‘지금까지의 것들 중 가장 해로운 문서’라고 선언하였다.¹⁹⁾ 로마 가톨릭도 1546년의 트랜트 공의회에서 이중 칭의의 교리와 「레겐스부르크 문서」에 나타난 사상들을 정죄하였다.²⁰⁾ 애크(John Eck)와 같은 이는 「레겐스부르크 문서」가 루터주의자들의 사상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톨릭인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²¹⁾

역사에서 가정을 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기는 하지만, 레겐스부르크 회의에 대한 역사학자 랑케(Leopold von Ranke)의 언급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만일 내가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회담은 독일과 심지어 모든 세계를 위해 매우 중요한 단계였다. 교회의 일치와 민족의 통일이 유지되었었더

를 참고할 수 있다.

19. Hastings Eells, “The Origin of the Regensburg Book,” 370–371.

20. James F. McCue, “Double Justification at the Council of Trent : Piety and Theology in Sixteenth Century Roman Catholicism,” *Piety, Politics, and Ethics : Reformation Studies in Honor of George Wolfgang Forell*, ed. Carter Lindberg(Kirksville, MO : The Sixteenth Century Journal Publishers, 1984) : 39–56.

21. Basil Holl, “The Colloquies between Catholics and Protestants, 1539–1541,” 263–264.

라면 참으로 멋지고 영구적인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다. 만일 온건파가 로마와 이탈리아에서 주도권을 행사했더라면, 가톨릭 세계도 매우 다른 양상을 띠었을 것이다.²²⁾

비록 레겐스부르크 회의가 합의에 도달하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그것이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며, 적어도 에큐메니칼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 주었다는 점에서 공헌한 바가 있다 할 것이다.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 특히 루터주의자들과 츠빙글리주의자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성찬논쟁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노력했던 부처가 레겐스부르크 회의에서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를 화해시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다. 어떤 때는 부처의 열린 태도가 칭찬보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하지만 부처는 교회일치의 회복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라고 여겼다. 부처는 그야말로 ‘중도를 위해 태어난 사람’²³⁾ 이었다. 부처는 실로 16세기에 살았던 인물들 중 가장 에큐메니칼적인 개혁자 중 한사람이었다.

교회일치를 위한 칼뱅의 노력들

칼뱅은 제네바에서 1차 사역(1536-1538)을 하다가 추방당하고 나서 스트라스부르로 가서 거주하였다(1538-1541). 이 스트라스부르 체류 기간에 칼뱅의 정신은 스트라스부르의 종교개혁자인 부처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았다.²⁴⁾ 방델이 지적했듯이 이 스트라스부르 체류 기간은 ‘칼뱅의 생애에

22. Ibid., 235.

23. James M. Kittelson, “Martin Bucer and the Sacramentarian Controversy : the origins of his policy of concord,” 166.

24. 칼뱅에게 미친 광범위한 부처의 영향에 관해서는 아래의 글들이 도움이 된다. Wilhelm Pauck, “Calvin and Butzer,” 77-92; W. van’t Spijker, “The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였다.²⁵⁾ 특별히 이 기간은 부처가 교회일치를 위한 활동이 절정에 달한 시기로, 그는 이 기간에 소집되었던 거의 모든 교회 회의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논문에서 내가 주장하는 바는 칼뱅이 교회 질서, 예정, 성찬에 관한 부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의 교회일치 활동에 의해서도 깊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빌헬름 포크(Wilhelm Pauck)는 칼뱅이 스트라스부르를 떠날 때에는 ‘부처의 제자 혹은 추종자’²⁶⁾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포크는 칼뱅의 에큐메니칼 사상에 미친 부처의 영향에 대해 강조하였다.

칼뱅이 스트라스부르에서 보편적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사상을 접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남은 생애 동안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노력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바로 부처가 칼뱅을 프랑크푸르트로 초청했고, 중요한 종교 회의들, 대회들, 그리고 1541년 하계나우와 레겐스부르크의 논쟁들에 함께 참여하자고 권하였다. 부처의 중재를 통해 칼뱅은 독일의 프로테스탄티즘과 접촉하게 되었고 특별히 멜란히톤을 만나게 되었다. 그 후부터 칼뱅은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의 연합을 위한 관심에 있어서 또 한 사람의 부처가 되었다.²⁷⁾

Influence of Bucer on Calvin as becomes evident from the *Institutes*,” 106-132 ; W. van’t Spijker, “Bucer’s influence on Calvin : church and community,” *Martin Bucer : Reforming church and community*, ed. D. F. Wright(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32-44 ; Robert E. H. Uprichard, “The Eldership in Martin Bucer and John Calvin,” *Evangelical Quarterly*, 61(January 1989) : 21-37 ; John T. McNeill, *Unitive Protestantism*, 133-220. 국내에서는 최운배 교수가 부처와 칼뱅의 관계에 대해 적극 소개하고 있다. 그의 논문 “마르틴 부처와 장 칼뱅의 상호관계,” 「서울장신논단」, 제9호(2001) : 96-116 ; “마르틴 부처의 교회일치적 활동에 나타난 교회론,” 「장신논단」, 제20호(2003), 161-181을 참고할 수 있다.

25. Francois Wendel, *Calvin :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65.

26. Wilhelm Pauck, “Calvin and Butzer,” 82.

27. Ibid., 82-83.

스트拉斯부르 채류 기간 동안 칼뱅은 부처의 신학 사상뿐만 아니라 부처의 교회일치를 향한 열정도 받아들인 것이다. 일련의 에큐메니칼 회의들에 참석한 경험을 통해 칼뱅은 교회일치의 필요성을 깊이 느꼈으며, 그 후 계속해서 교회일치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였다.

종교개혁 시기의 에큐메니칼 활동들에 관한 연구로 잘 알려진 맥닐은 “어느 누구도 칼뱅보다 더 참된 교회로부터의 분열을 강력하게 비난하지는 못했다.”²⁸⁾고 말한다. 칼뱅에 따르면 “교회로부터의 분리는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 이 사악한 분리를 피하여야만 한다.”²⁹⁾ 칼뱅의 에큐메니즘은 바로 참된 교회에 대한 그의 이해와 연결되어 있다. 「사돌레토에게 보내는 답변」(*Reply to Sadolet*)에서 칼뱅은 참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한다.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으로서, 교리와 그리스도의 한 영에 의해 서로 결합되어 있으며, 신앙의 일치와 형제적 화합을 촉진하고 지키는 회이다. 우리는 이런 교회와 어떤 불화도 겪지 아니한다. 오히려 이 교회를 우리의 어머니로 존중하는 것만큼이나 우리는 이 어머니의 품속에 있기를 열망한다.³⁰⁾

칼뱅에게 있어서 모든 신자들은 건전한 교리와 한 분이신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한몸이다. 칼뱅은 교회의 참된 표지는 말씀과 성례인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되고, 들려지며, 성례들이 올바르게 시행되는 한 어떠한 분열도 용인될 수 없다고 믿었다. 그는 「기독교강요」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인 교회의 교제를 매우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28. John T. McNeill, *Unitive Protestantism*, 180.

29.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tr. Ford Lewis Battles(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Book IV, Chapter 1, Section 10, 1024–1025.

30. John Calvin, “Reply to Sadolet,” in *Calvin : Theological Treatises*, tr. J. K. S. Reid (London : SCM Press, 1954), 231.

교회 안에 말씀과 성례의 참된 직무가 있는 한 교만하게 그곳을 떠나는 자들을 기독교의 배반자요 배교자로 간주하신다.”³¹⁾고 주장하였다. 칼뱅의 참된 교회에 대한 정의와 교회의 표지에 관한 언급에서 우리는 교회일치를 향한 그의 열망을 볼 수 있다.

교회의 일치를 위해 칼뱅은 부처가 그랬듯이 루터와 츠빙글리 사이에 벌여졌던 성찬논쟁을 중도적 입장에서 조정하고자 노력하였다. 성찬에 대한 칼뱅의 입장은 그의 글 「성찬에 대한 소논문」(*Short Treatise on the Lord's Supper*, 1541)과 「취리히 합의」(*Consensus Tigurinus*, 1549)에 잘 드러나 있다. 「성찬에 대한 소논문」은 1540년 칼뱅이 스트拉斯부르에 체류하고 있던 중에 써어져 1541년 제네바에서 출판된 것으로, 성찬에 대한 칼뱅의 이해를 가장 잘 보여 주고 있다. 여기에서 칼뱅은 프로테스탄트들 사이에서 합의와 일치를 이룰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표출하였다. “아직까지는 합의를 표현한 어떤 신앙고백도 공포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작성할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길 기뻐하실 때에는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³²⁾ 맥닐이 지적한 것처럼, 칼뱅은 이 소논문에서 “루터의 ‘정’(thesis)과 츠빙글리의 ‘반’(antithesis)을 하나의 ‘합’(synthesis)으로 해결코자 했는데, 이 새로운 합 안에서 모든 진의들이 이해되고 논객들은 화해될 수 있기를 소망하였다.”³³⁾ 부처의 제자로서 칼뱅은 ‘참된 영적인 임재’(true and spiritual presence)라는 개념을 가지고 루터의 ‘실제적 임재’(real presence)와 츠빙글리의 ‘실제적 부재’(real absence)의 개념을 결합하려고 노력했다.³⁴⁾

31.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V, 1, 10, 1024.

32. John Calvin, “Short Treatise on the Lord's Supper,” *Calvin : Theological Treatises*, tr. J. K. S. Reid(London : SCM Press, 1954), 166. 테오도르 베즈는 이 소논문을 John Calvin, *Tracts and Treatises on the Doctrine and Worship of the Church*, Vol. 2, tr. Henry Beveridge(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8), 163에서 “성찬에 관한 작지만 황금처럼 빛나는 논문”이라고 칭송하였다.

33. John T. McNeill, *Unitive Protestantism*, 186.

성찬에 관한 칼뱅의 또 다른 중요한 글은 「취리히 합의」로 26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칼뱅과 츠빙글리의 후계자였던 볼링거 사이에 체결된 합의 문서이다. 「취리히 합의」를 통해서 제네바와 취리히의 개혁교회들은 성찬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시도는 부분적인 성공만을 거두었다. 왜냐하면 이 「취리히 합의」를 통해 스위스 개혁교회는 칼뱅주의와 츠빙글리주의라는 두 분파로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었지만, 이로 인해 개혁교회와 루터교회 사이에 새로운 갈등이 증폭되었기 때문이다. 「취리히 합의」가 나온 이후 칼뱅과 베스트팔(Joachim Westphal), 헤슈시오스(Tileman Heshusius)와 같은 엄격한 루터주의자들 사이에 새로운 성찬논쟁이 벌어졌다.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취리히 합의」는 칼뱅이 당시 스위스 개혁교회의 일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음을 보여 주는 열매로서, 개혁교회의 애큐메니칼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칼뱅이 「레겐스부르크 문서」를 프랑스어로 번역하여 출판했다는 사실 또한 애큐메니칼 대화에 대한 그의 관심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³⁵⁾ 칼뱅은 기욤 파렐에게 보낸 1541년 5월 11일자 편지에서 「레겐스부르크 문서」에서 칭의를 다룬 다섯 번째 조항에 대한 만족감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칭의를 둘러싼 논쟁이 매우 격렬하였습니다. 당신이 이 편지에 포함되어 있는 발췌된 사본을 읽어 보시면 우리의 대적들이 크게 양보했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놀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참된 교리의 본질을 유지하였고, 따라서 이 문서 안에 우리의 저작들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상대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많은 것을 성취했다는 것을 당신은 인정할 것입니다.³⁶⁾

34. Peter Newman Brooks, "Martin Bucer : Oecuméniste and Forgotten Reformer," 233.

35. Basil Hall, "The Colloquies between Catholics and Protestants, 1539–1541," 257.

방델에 따르면, 루터와 그의 추종자들이 이신칭의를 일방적으로 강조한 반면에, 칼뱅은 칭의와 성화를 '동등한 가치를 지닌 두 가지 은혜'³⁷⁾라고 간주하였다. 따라서 칼뱅은 이중 칭의의 교리를 기꺼이 수용할 수 있었다. 방델이 이해한 칼뱅의 이중 칭의란 "먼저는 죄인의 칭의이고 다음으로 의로워진 자의 칭의,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의 행위를 통한 칭의이다."³⁸⁾ 칼뱅은 분명 「기독교강요」에서 선행을 '부르심의 열매', '하나님의 선물', '선택을 받았음을 알게 해 주는 표지'³⁹⁾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칼뱅이 방델이 제시하는 것처럼 믿음에 의한 칭의와 행위에 의한 칭의를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주장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 칼뱅은 좋은 나무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칼뱅은 「사돌레토에게 보내는 답변」에서 "만일 당신이 신앙과 행위가 어느 정도로 분리될 수 없는지를 제대로 알기 원한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0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칭의와 성화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⁴⁰⁾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를 만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은 칭의와 성화가 나누어질 수는 없지만, 칭의가 구원에 있어서 우선적 위치를 차지함을 뜻하는 것이다. 칼뱅은 언제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우선성을 강조하면서, 또한 의로워진 자의 선행의 중요성을 말하였다.

36. John Calvin, *Letters of John Calvin*, ed. Jules Bonnet (New York : Burt Franklin, 1972), Vol. 1, 260.

37. François Wendel, *Calvin :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257.

38. Ibid., 260.

39.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Book III, Chapter 14, Sections 19–20, 785–786.

40. John Calvin, "Reply to Sadolet," 236.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고전 1:30).

스트라스부르 체류 이후 칼뱅은 교회일치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 포크가 말한 대로 ‘또 한 사람의 부처’가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칼뱅에게는 부처와 다른 새로운 것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칼뱅은 부처의 사상을 교정하거나 개선하지 않은 채로 수용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교회일치와 관련하여 부처와 칼뱅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부처가 ‘사랑’과 ‘친교’를 강조했다면 칼뱅은 ‘신앙’과 ‘진리’를 강조하였다. 강조점이 달랐던 것이다. 부처는 “비록 내가 항상 꼭 필요한 온정과 열린 마음으로 이것을 추구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내 목표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품는 것”⁴¹⁾이라고 말한다. 부처에게는 형제적 사랑이야말로 주의 성찬에서 본질적 요소이며 참된 교회의 표지였다. 기독교의 본질은 신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다. 부처는 사랑과 교제에 대한 그의 강조를 이렇게 표현한다.

친교, 상호간의 돌봄, 공동체 안에서의 치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었던 바로 그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하나님가 되어야 만 하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희구했던 바로 그 열망으로 서로의 구원을 구하여야 한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가 고난받은 이유이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다.⁴²⁾

부처에게 교회는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친교(*communio sactorum*)였다. 그에게 기독교공동체의 기본적 특징은 형제애였다. 따라서 부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일치를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부처와 비교할 때 칼뱅은 사랑 안에서의 일치보다 진리 안에서의 일치를

강조하였다. 칼뱅은 근본적인 신학적 진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과 타협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따라서 칼뱅은 부처의 타협적 태도에 대해 항상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칼뱅은 1538년 1월 12일 부처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미신에 의해 고안된 것이라는 말을 들을 때, 즉시 그러한 것은 거룩한 교부들이 그들의 저작들에서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권고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정죄될 것은 아니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교부들의 권위를 구실삼아 허위를 진리로 간주하려고 억지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를 지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의를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⁴³⁾

칼뱅은 이처럼 부처가 쉽게 본질적 교리들도 타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비판했으며, 부처가 ‘양심의 문제에 있어서 애매함보다 더 해로운 것은 없다는 사실’⁴⁴⁾을 충분히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였다. 칼뱅은 「사돌레토에게 보내는 답변」에서 교회일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했다.

나는 언제나 말과 행동으로 내가 일치를 얼마나 열망하는지를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교회의 일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화와 일치를 명하셨을 때, 그는 동시에 자신이 그것을 보존하는 유일한 끈이 되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만일 내가 자신들이 교회의 머리들이고

43. John Calvin, *Letters of John Calvin*, ed. Jules Bonnet(New York : Burt Franklin, 1972), Vol. 4, 389.

44. John Calvin, *Letters of John Calvin*, ed. Jules Bonnet(New York : Burt Franklin, 1972), Vol. 1, 263(Calvin to Farel, May 12, 1541).

41. Wilhelm Pauck, “Calvin and Butzer,” 89.

42. Ibid., 90.

신앙의 기둥들이라고 떠벌이는 사람들과의 평화를 원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부인함으로써 그것을 달성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저주스런 화해에 굴복하는 것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습니다.⁴⁵⁾

칼뱅의 교회일치를 위한 열정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의 진리, 곧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일치의 전제 조건으로서 건전하고 충실한 교리를 강조했다. 칼뱅은 「교회개혁의 필요성」(*Necessity of Reforming the Church*)이라는 책에서 교회일치에서 순수한 교리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만 붙어 있어야 한다는 순수한 교리에 대해 서로 공감할 때에만 거룩한 일치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불변의 요점이 되도록 합시다. 만일 아무런 교리든지 거기에 찬동하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교회를 사악한 자들의 불경스러운 파당들로부터 어떻게 구별할 수 있단 말입니까?⁴⁶⁾

칼뱅이 추구한 일치는 “진리로부터 떠난 이름뿐인 교회의 일치가 아니라 ‘참된 교회’의 가시적 일치”⁴⁷⁾였기 때문에, 그의 교회일치를 위한 노력은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칼뱅이 로마 가톨릭을 참된 교회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부처의 대화 상대가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 사람들 모두를 포함한 반면에, 칼뱅의 일치를 위한

45. John Calvin, “Reply to Sadolet,” 249. 칼뱅은 이 글에서 또한 “당신의 진리가 일치의 끈이 되는 한도 안에서, 내가 당신의 교회의 일치를 위해 얼마나 열정을 불태웠는지 내 양심이 증언”(250)한다고 말한다.

46. John Calvin, *The Necessity of Reforming the Church*, tr. Henry Beveridge (Philadelphia : Presbyterian Board of Publication, 1843), 143. 이 문서는 부처의 권유에 따라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옹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어 1544년 열린 슈파이어 회의에 제출되었다.

47. John T. McNeill, *Unitive Protestantism*, 186.

관심은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에게 한정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서로 다른 강조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형제적 사랑과 성도들의 친교를 강조한 부처가 신앙과 진리를 강조한 칼뱅보다 대화의 폭이 넓은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부처와 칼뱅의 서로 다른 강조점에도 불구하고, 칼뱅은 부처의 에큐메니칼 이상을 충심으로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더욱이 칼뱅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처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때에는 부처를 변호하였다. 예를 들면, 칼뱅은 불링거에게 보내는 1540년 3월 12일 편지에서 부처에 대해 이렇게 변호하고 있다 : “부처는 이례적으로 명쾌하고 예리한 판단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처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단순성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도 드물며, 부처만큼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만드는 재담에 현혹되지 않는 사람도 드뭅니다. 그는 그런 재담을 몹시 싫어합니다.”⁴⁸⁾ 칼뱅은 언제나 부처의 탁월함과 신실함을 확신하였다.

칼뱅이 스트라스부르를 떠나 제네바로 귀환한 직후인 1541년 10월 15일 부처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를 분명히 볼 수 있다. 이 편지에서 칼뱅은 부처를 아버지로 대하였다 : “만일 내가 당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한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하듯이 훈계하고 질책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당신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⁴⁹⁾ 부처가 죽었을 때 칼뱅은 불링거에게 보낸 1551년 2월 28일 편지에서 자신은 마치 고아가 된 느낌이라고 말하였다.⁵⁰⁾ 부처는 여러 모로 칼뱅에게 현명하고 성실한 스승이었다. 특히 교회일치의 문제에 있어서 칼뱅에게 가장 심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부처였다는 것은 명백하다. 칼뱅이 스트라

48. W. van't Spijker, “The Influence of Bucer on Calvin as becomes evident from the *Institutes*,” 107–108.

49. John Calvin, *Letters of John Calvin*, ed. Jules Bonnet (New York : Burt Franklin, 1972), Vol. 1, 294.

50. Wilhelm Pauck, “Calvin and Butzer,” 88.

스부르에 있을 때, 불링거에게 이런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다(1540년 3월).

친애하는 불링거, 지금 이 순간 우리 사이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형제적 친교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보다 더 큰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이겠습니까? ……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들과 더불어 교제와 사귐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조심스럽게 지켜 나가야 합니다. …… 나로서는 내 힘이 미치는 한 언제나 이 목적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⁵¹⁾

이 편지에서 칼뱅은 자신의 남은 생애 동안 교회들의 중재자가 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스트拉斯부르에 체류하는 동안 칼뱅은 자기 삶에서 중요한 한 가지 목표를 발견한 것이다. 맥닐이 지적했듯이 “부처의 영향이 칼뱅의 일치에 대한 관심을 깊게 하는 데 가장 유력한 요소였다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가정이다.”⁵²⁾ 교회일치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 칼뱅은 참으로 부처의 제자였다.

나가는 말

이 논문에서 나는 부처와 칼뱅의 교회일치를 위한 사상과 활동을 살피고, 칼뱅에게 미친 부처의 영향을 논하였다. 부처야말로 ‘일치의 사도’⁵³⁾였으며 ‘16세기 교회일치의 이상을 가장 열정적으로 옹호한 개혁자’⁵⁴⁾였다. 부처는 탁월한 추진력으로 ‘형제적 사랑’과 ‘성도의 교제’라는 원리에 근거한 일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부처는 성찬론에 대한 중도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의 일치를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일련의 에큐

메니칼 회의들을 통해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화해도 추구하였다.

칼뱅은 스트拉斯부르 체류 기간(1538–1541)에 여러 측면에서 부처의 영향을 받았다. 그 중에서 칼뱅은 교회일치의 중요성을 부처로부터 배웠다. 칼뱅의 성찬에 대한 입장과 스트拉斯부르 체류 이후에 쓴 저작들이 부처의 에큐메니칼적 태도가 칼뱅에게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 주고 있다. 칼뱅을 스트拉斯부르로 초청한 것도 부처였고, 1540부터 1541년까지 열린 일련의 에큐메니칼 회의들에 칼뱅을 동행한 사람도 부처였다. 물론 교회일치 문제와 관련하여 부처와 칼뱅은 서로 강조점이 달랐다. 부처가 ‘사랑’과 ‘친교’를 강조한다면, 칼뱅은 ‘진리’와 ‘신앙’을 강조했다. 부처가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신자들 모두를 포함하는 믿는 자들의 일치를 추구했다면, 칼뱅은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에 자신의 노력을 한정하였다. 왜냐하면 칼뱅은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참된 교회라 볼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두 사람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부처가 칼뱅의 교회일치 사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명백하며, 두 사람 모두 16세기 에큐메니즘의 강력한 옹호자들이었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Bucer, Martin. *Common Places of Martin Bucer*, tr. and ed. D. F. Wright. Abingdon : Sutton Courtenay Press, 1972.
- _____. *De Regno Christi*, in *Melanchthon and Bucer*, ed. Wilhelm Pauck. 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1969.
- _____. *Instruction in Christian love*, tr. Paul Traugott. Richmond : John

51. John T. McNeill, *Unitive Protestantism*, 184–185.

52. Ibid., 184.

53. Peter Newman Brooks, “Martin Bucer : Oecuméniste and Forgotten Reformer,” 233.

54. John T. McNeill, *Unitive Protestantism*, 144.

- Knox Press, 1953.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1559). ed. John T. McNeill, tr. Ford L. Battle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 20-21.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60.
- _____. *Letters of John Calvin*. ed. Jules Bonnet. New York : Burt Franklin, 1972.
- _____. "Reply to Sadolet." *Calvin : Theological Treatises*, tr. J. K. S. Reid. London : SCM Press, 1954.
- _____. "Short Treatise on the Lord's Supper." *Calvin : Theological Treatises*. tr. J. K. S. Reid. London : SCM Press, 1954.
- _____. *The Necessity of Reforming the Church*. tr. Henry Beveridge. Philadelphia : Presbyterian Board of Publication, 1843.

2. 2차 자료

- Atkinson, James. "Martin Bucer, 1491-1551 : Ecumenical Pioneer." *Churchman* 79(March 1965) : 19-28.
- Anderson, William P. "Gasparo Contarini : Sixteenth Century Ecumenist." *Ecumenical Trends* 13/9(October 1984) : 140-142.
- Augustijn, Cornelis. "Bucer's ecclesiology in the colloquies with the Catholics." *Martin Bucer : Reforming Church and Community*. ed. D. F. Wright.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107-121.
- Brady, Thomas A. Jr. "'The Earth is the Lord's, and Our Homeland as well' : Martin Bucer and the Politics of Strasbourg." *Martin Bucer and Sixteenth Century Europe*. Vol. 1. ed. C. Krieger and M. Lienhard. New York : E. J. Brill, 1993 : 129-144.
- Brooks, Peter Newman. "Martin Bucer : Oecum niste and Forgotten

- Reformer." *Expository Times* 103(May 1992) : 231-235.
- Dueck, Abe J. "Unpublished letter pertaining to developments prior to the colloquy between Bucer and Melanchthon, December 1534." *Archiv für Reformationsgeschichte* 66(1975) : 141-151.
- Eells, Hastings. "Martin Bucer and the Conversion of John Calvin." *Princeton Theological Review*. Vol. 22, No. 3(July 1924) : 402-419.
- _____. "The Failure of Church Unification Efforts during the German Reformation." *Archiv für Reformationsgeschichte*. 42(1951) : 160-173.
- _____. "The Origin of the Regensburg Book." *Princeton Theological Review*. Vol. 26(1928) : 355-372.
- Hammann, Gottfried. "Ecclesiological motifs behind the creation of the 'Christlichen Gemeinschaften.'" *Martin Bucer : Reforming church and community*. ed. D. F. Wright.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129-143.
- Holl, Basil. "The Colloquies between Catholics and Protestants, 1539-1541." *Councils and Assemblies*. ed. G. J. Cuming.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 235-266.
- Kittelson, James M. "Martin Bucer and the Sacramentarian Controversy : the origins of his policy of concord." *Archiv für Reformationsgeschichte* 64(1973) : 166-183.
- Kretschmar, Georg. "The Imperial Diet of Regensburg 1541 and the Confessio Variata of 1542." *Piety, Politics, and Ethics*, ed. C. Lindberg. Kirksville, MO : Sixteenth Century Journal Publishers, 1984 : 85-102.
- Kroon, Marijn de. "Martin Bucer and the Problem of Tolerance." *Sixteenth Century Journal* 19/2(1988) : 157-168.
- McCue, James F. "Double Justification at the Council of Trent : Piety

- and Theology in Sixteenth Century Roman Catholicism." *Piety, Politics, and Ethics: Reformation Studies in Honor of George Wolfgang Forell*, ed. Carter Lindberg. Kirksville, MO: Sixteenth Century Journal Publishers, 1984: 39-56.
- McNeill, John T. "Calvin as an Ecumenical Churchman." *Ecumenical Testimony*, ed. John McNeill and James H. Nichol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4: 13-26.
- _____. *Unitive Protestantism: The Ecumenical Spirit and Its Persistent Expression*. Richmond: John Knox Press, 1964.
- McNeill, John T. and James Hastings Nichols. *Ecumenical Testimon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4.
- Nugent, Donald G. *The Colloquy of Poissy: A Study in Sixteenth Century Ecumenism*. University of Iowa, 1965.
- Ozment, Steven. *The Age of Reform 1250-1550: An Intellectual and Religious History of Late Medieval and Reformation Europ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0.
- Pauck, Wilhelm. "Calvin and Butzer." *The Heritage of the Reformation*. Glencoe: The Free Press, 1950: 77-92.
- Rupp, E Gordon. "Philip Melanchthon and Martin Bucer." *A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 ed. H. Cunliffe-Jone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0: 373-383.
- Spijker, W. van't. "Bucer's influence on Calvin: church and community." *Martin Bucer: Reforming church and community*, ed. D. F. Wrigh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32-44.
- _____. "The Influence of Bucer on Calvin as becomes evident from the Institutes." *John Calvin's Institutes: His Opus Magnum*. Potchefstroom: Potchefstroom University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1986.
- Stephens, W. Peter. *The Holy Spirit in the Theology of Martin Bucer*.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 Thompson, Bard. "Bucer Study since 1918." *Church History*, Vol. 25, No. 1(March 1956): 63-82.
- Uprichard, Robert E.H. "The Eldership in Martin Bucer and John Calvin." *Evangelical Quarterly* 61(January 1989): 21-37.
- Wendel, Francois. *Calvin: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tr. Philip Mairet. New York: Harper&Row Publishers, 1950.